해양수산부	동정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 11. 19.(목)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 내수면 업계의 현장 목소리 듣는다

- CPTPP 가입 시 내수면 업계에 미칠 영향과 현장의 우려 사항을 청취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 논의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11월 19일(목) 서울에서 내수면 어업인과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한 현장의 우려 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CPTPP 가입이 내수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향어·메기·미꾸라지·민물장어 등 다양한 내수면 어종의 생산 여건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내수면 산업은 어종별로 생산 방식과 유통 구조가 다양하며, 생산비 부담과 소비 시장 한계에 따른 어려움도 겪고 있다. CPTPP 가입에 따른 내수면 분야의 피해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시장 개방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산업 전반의 어려움을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어종별 생산 여건과 수입산과의 경쟁 상황을 공유하고, 생산비 부담 완화, 양식 시설 개선, 판로 확대 등 내수면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남 차관은 "CPTPP 가입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우려와 어려움에 귀 기울이겠다."라며, "내수면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생산 여건 개선과 판로 확대 등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도윤정 (051-773-5420)
		담당자	사무관	박지수 (051-773-542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